

美전문가 “李-트럼프 회담, 한미동맹 중대 변곡점 될 수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중대 ‘변곡점’을 만드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문제 등 논쟁의 소지가 큰 문제는 실무급 후속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공약, 대북 접근에 있어서의 한미 간 철저한 사전 조율 등을 재확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서로 친분을 형성하고 정상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지역 안보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향후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이견이 뉴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인화점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동시에, 앞으로 이슈가 생기면 한미 정상 간의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동맹과 관련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견을 꾸준한 대화로 지배하는 정부 실무급의 의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일치 못할 것임을 아는 것’, 즉 예측 가능성이 대한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생각하는 ‘자산’인데 그런 것을 보장하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앤드루 어브루킨스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미국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널리 퍼져 있는 조선 분야의 협력도 강조할 것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상회담 키워드이자
잠재적인 인화점

“첫만남 친분 형성 중요
난제는 실무 논의로 넘기고
현안 논의 초점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약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대북 억제력 및 관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논쟁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조건을 정의함에 있어 대만 유사시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될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확답도 받아야 할 것이다.

◇폴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IE) 경제정책분석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역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측의 투자 약속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략과 비용 분담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양측 모두 조선 분야에 진지해 보인다. 양국은 아직 소고기

와 쌀을 둘러싼 농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디지털 무역과 같이 한미 무역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에 관한 패키지 협상을 모색하면서 동맹의 부담 공유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램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양측,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맹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백악관에서 열린 다른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국과의 무역·투자 거래에서 ‘승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안보 지출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빅딜에 관심을 보

이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발발을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 불확실한 면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과제는 무역·투자 합의와 안보 기여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 친분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골프 또는 두 사람이 각 각 압살 시도를 겪은 경험이 첫 만남의 서먹함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위원

미국은 중국을 ‘진전되고 있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확인과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불가피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미국의 핵심 안보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측 생각은 평시에 주한미군의 주목적은 대북 억제로 유지되되, 그 일부는 대중국 억제 태세를 갖추고, 전시에 필요시 일부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발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군사태세와 관련,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일부 변화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예상된다. 때문에 예컨대 미국이 한국에 5세대 전투기 같은 최신 무기체계를 배치하면서 병력은 다소 줄이려 할 수 있다. 동맹 현대화의 의미에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뜻도 있어 병력 조정도 조금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싸울 수 있는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또 너무 자세한 요구사항을 다의제에 올리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나머지 요구 사항은 실무급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임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선언’(미국의 대한민국 핵무산 공약 강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이상 2023년)를 이행하고 구체화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발표 하루만에...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백악관 주변 배치는 아직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2일(현지시간) 주방위군의 현장 배치가 개시됐다.

미국 정치권 인사와 공무원들은 물론 각국 외교 사절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워싱턴DC 거리에서

주방위군 군복 차림의 순찰 인력이 눈에 띄는 생경한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워싱턴 DC 도심 일부에서는 주방위군이 순찰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특히 도심 한복판의 워싱턴기념탑 건너편에는 약 12명의 주방위군이 5대의 군용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미국 일간 NYT는 전했다.

이들은 부여받은 임무나 체류 기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그중 한 명은 질문에 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주방위군 배치가 아직 대대적으로 이뤄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백악관 주변과 DC 중심가에서 순찰하는 주방위군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백악관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 요원들은 ‘주방위군을 봤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아직 못 봤다’고 답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국어 교가’ 교토국제고 日여름 고시엔 16강 진출

“동해 바다 건너서...”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를 가진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 올해도 출전해 첫 승을 올렸다.

교토국제고는 13일 오전 효고현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올해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군마현의 겐다이다카사키고교를 6대 3으로

놀렸다. 이로써 오는 16일 치러질 16강전에 진출했다.

19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07회를 맞은 여름 고시엔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야구대회로, 전국의 수천 개 학교 중 예선전을 거친 수십 개 학교만 참가할 수 있어 현지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도쿄=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 중급, 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 교육과정 | 28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 1:1지도 사전예약 |
|-----------|----------|---------------------|---------------|
| 2급 지도자 과정 | 자격취득 총비용 | | |
| 1급 지도자 과정 | 36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 1:1지도 사전예약 |
| 초급완성반과정 | 12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 1:1지도/3회 사전예약 |
| 초급원포인트과정 | 6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 1:1지도/2회 사전예약 |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장/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